

고부관아 복원, 민주주의 교육장으로



이학수 정읍시장을 비롯해 '고부관아 복원 및 백운화상 선양사업 추진위원회 출범식'에 참석한 인사들이 사업을 성공을 기원하며 사발통문에 서명하고 있다. <정읍시 제공>

일제시대 때 강제 철거 아픈 역사 정읍시, 사업 추진위 공식 출범

직지 편저자 백운화상 선양사업도

정읍시가 동학농민혁명의 시작을 알린 고부관아 복원과 세계 최초의 금속활자로 제작된 부처님의 말씀을 기록한 직지(直指)의 편저자인 백운화상 선양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정읍시는 지난 7일 고부 동학올림픽터 광장에서 이학수 시장, 고경운 정읍시장, 윤준병 국회의원 등 주요기관장을 비롯해 주민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고부관아 복원 및 백운화상 선양사업 추진위원회 출범식'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고부관아 복원과 백운화상 선양사업을 적극 추진할 것을 주민 스스로 다짐하고 전북도, 정읍시, 전라북도 교육청 등 관계기관이 적극적으로 지원한다는 의미를 담았다.

이 행사를 주관한 추진위원회(공동 위원장 김철

모·이복형)는 "이번 행사는 고부면민의 오랜 숙원이자 옛 고부의 정체성과 자존심을 세우는 뜻깊은 행사로 128년 전 고부백성의 함성이 드높았던 현장인 고부관아를 복원해 민주주의 산 교육장으로 활용하고, 나아가 고부역사는 물론 동학농민혁명의 역사를 바로 세우는 초석이 될 것이다"고 밝혔다.

이어 "세계최초 금속활자본으로 세계 문화유산에 지정된 '직지심체요절(直指心體要節)'의 편저자인 백운화상이 고부면 백운리 출신임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면서 백운화상의 업적을 기리고 그 선양사업을 통해서 고부의 자긍심을 세우는 기회로 삼고자 한다"고 추진위원회 설립 배경을 밝혔다.

직지는 팔만대장경의 축소판이라고 불릴 정도로 고승의 법어가 다양해 우리나라 학생들이 대교과를 마치고 수의과에서 공부할 때 사용하는 학습서로 전라도 고부출신인 백운화상이 1372년 제자 법린 선사의 도움을 받아 '백운화상초록불조지심체요절'을 지었다.

추진위는 앞으로 고부관아복원과 백운화상 선양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주민의 중지를 모으

고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조해 나가기로 했다.

김철모 추진위원장은 "고부관아복원과 백운화상 선양사업은 역사와 전통이 살아 숨쉬는 고부의 자랑스런 문화자산과 역사를 바로 세우는 일이요 쇠락한 고부의 옛 명성을 되찾는 동시에 고부면민의 정체성과 자긍심을 높이는 일이다"면서 "본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된다면 정읍시민의 자긍심을 높일 수 있을뿐만 아니라 전북도민에 자랑스런 또 하나의 역사적 사료를 남기는 일이다"고 의미를 전했다.

한편 고부군은 동학농민혁명 이후 일제에 의한 행정구역 개편으로 일부 지역이 부안군과 고창군으로 편입됐으며 고부군에서 고부면으로 전략하는 수모를 겪었다.

이후 고부에 있던 주요 기관들은 시내로 이전하고 신식교육이라는 미명으로 일제는 고부관아를 강제로 철거하고 그 자리에 고부초등학교를 세워 오늘날 고부관아의 흔적은 어느 곳에도 찾을 수 없는 근대사의 아픔이 서려 있는 곳이다.

/정읍=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parkks@

“고창 여행하면 최대 12만원 드려요”

여행 미션 수행후 SNS 후기 제출 '고창한밤' 참여자 13일까지 모집

고창문화관광재단이 지역관광 활성화를 지속가능한 관광콘텐츠 발굴을 위해 여행경비 지원사업 '고창한밤'을 추진한다.

고창한밤은 관광 트렌드와 이슈 공유를 통해 다

양한 세대층이 지역에 유입되도록 유도하고, 여행 정보 수집을 통해 체류형 관광코스·신규관광지를 찾아내는 사업이다.

참여 희망자는 11~12월 내 고창군 전역을 여행하며 '고창한밤' 여행미션을 수행하고, 이후 SNS에 후기 업로드 및 여행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홍보효과, 여행코스의 차별성 등 선정기준에 따라 총 100팀을 선정하며, 구성인원 수에 따라 1팀

당 최대 12만원까지 여행경비를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고창군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20~40대로, 11월7일부터 11월13일까지 7일간 고창문화관광재단 홈페이지 및 공식 인스타그램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재단 이사장인 심택섭 고창군수는 "소도시 여행에 대한 관심이 증가해 지역의 재발견 트렌드가 확산되고 있는 만큼 관광객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기대된다"며 "정정지역 고창에서의 여행을 통해 고창의 매력을 느껴 보시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고창=김형조 기자 khj@kwangju.co.kr

정읍시-폴란드-SK넥실리스 동반 성장 다짐

상생모델 구축 업무협약

정읍시와 폴란드 스탈로바볼라시, SK넥실리스가 지속가능한 상생협력과 동반 성장을 위한 교류·협력을 약속했다.

정읍시는 최근 정읍 제3일반산업단지 내 SK넥실리스 본사에서 SK넥실리스의 국내외 투자지역인 정읍시와 스탈로바볼라시 간 지역사회 공헌 활동 등의 공유를 목적으로 '지속가능 상생모델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이 체결됐다고 밝혔다.

협약식에는 이학수 정읍시장과 SK넥실리스 이재홍 대표이사, 폴란드 스탈로바볼라시 루치우슈 나드베레즈니 시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을 계기로 정읍시와 스탈로바볼라시는 지역사회 공헌 활동은 물론 산업단지 운영 노하우 등을 공유,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해 투자하고 싶은 도시를 만들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할 계획이다.

또 실질적인 경제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지속가

능한 상생협력 모델을 구축함으로써 SK넥실리스를 포함한 3자 모두 동반 성장의 기회를 만들어 나간다는 방침이다.

정읍시와 SK넥실리스는 청년의 자립역량 강화를 위해 청년창업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실제 창업 중인 청년과 예비 창업가에는 사업장 공간 구축과 리모델링, 임차료 등의 창업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한편 폴란드 스탈로바볼라시는 SK넥실리스의 유럽지역 생산 거점지역으로 SK넥실리스는 약 56만㎡ 부지에 9000억원을 투자, 2024년까지 연간 5만7000t 규모의 생산공장을 건설할 계획이다.

이학수 정읍시장은 "정읍을 방문해 주신 폴란드 스탈로바볼라시 관계자들을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앞으로 두 도시가 산업단지 운영과 기업 투자 유치 노하우 등을 공유해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읍=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parkks@

남원시 '곤충유통사업지원 공모' 선정

남원시가 곤충 유통 활성화를 위한 '2023년 곤충유통사업지원' 공모사업에 선정됐다.

농식품부 주관으로 이 사업은 곤충유통사업단 체에 곤충 유통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컨설팅, 제품 개발, 홍보 마케팅 등의 경비를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이번 공모사업은 남원시와 장수군이 협업하며 '백두대간 곤충유통사업단'을 구성, 지난 10월 전

국 지자체 공모에 응모했고 서류심사와 발표평가 등을 거쳐 남원시·장수군, 경북 영덕군, 경남 사천시 등 3곳이 사업대상으로 선정됐다.

그간 곤충산업화지원사업, 유용곤충사육 지원사업, 곤충기자재 지원사업을 통해 곤충산업을 육성하고 있는 남원시는 공모를 통해 2억4000만원의 사업비를 추가 확보하게 됐다.

/남원=백선 기자 bs8787@kwangju.co.kr

남원시, 민·관 공동 '드론특구 지정' 도전



지난 7일 남원시 '드론특구' 지정-운영을 위한 관계 기관 및 기업의 공동협력 업무협약식이 열렸다. 최경식(왼쪽 여섯번째)시장을 비롯한 관계 기관 및 기업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남원시 제공>

15개 기관·기업 업무협약

남원시가 '드론·도심항공교통(UAM) 선도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드론특구' 지정에 도전한다.

남원시는 최근 국토교통부의 '드론 특별자유화구역' 지정-운영을 위해 15개 관계 기관 및 기업들이 모여 공동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식에는 최경식 시장을 비롯해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이영로 원장, 우석대 이창원 교수, 레오노비전 백원철 대표, 디에어 정영석 대표, 드론프리 박민준 대표, 서우 노갑수 대표 등 15개

의 관계 기관 및 기업 대표들이 참여했다.

협약에 참여한 기관·기업들은 국토교통부의 '드론특구'가 남원시로 지정되도록 공모에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드론 특별자유화구역' 지정 신청을 오는 15일까지 지자체별로 접수해 서류 및 현장심사와 평가위원회 심의, 부처협의 등을 거쳐 내년 3월에 확정할 예정이다. 이를 위한 전략적 사업추진과 향후 유기적인 운영을 위해 드론특구 지정 공동 신청, 주민 의견수렴 및 드론 서비스 활용추진 등에 협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남원=백선 기자 bs8787@kwangju.co.kr

★ 출시 기념 20% 할인 한정판에 ★

“남도맛기행” 먹거리 굿즈 출시

구매문의 (주)더킹핀 070-4238-6768

달콤주주

광주와 나주의 디저트로 하루를 달콤하게 시작

13,000원
10,400원

담솔목주

담양과 목포를 담은 한 잔으로 피로를 날리며 하루를 마무리

15,000원
12,000원

01. 광주의 오월 이야기를 담은 우리밀 오월쿠키

02. 나주의 쌀과 배로 건강하게 만든 나주 배쌀빵

01. 담양 대일솔이 들어간 약주

02. 목포 앞바다에서 잡아 말린 수제 쥐포

03. 청정 전남 바다의 김으로 만든 아몬드김스낵